

# “선배 귀어인들의 경험·노하우 배우며 자신감 얻었어요”

## 전남 귀어학교 교육생 17명 수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제7기 전남귀어학교' 졸업식이 교육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에서 열렸다. <사진> 지난 9월 26일부터 5주간 운영된 교육과정은 어촌 정착 초기단계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촌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귀어정책 및 선도가 현장실습, 창업분야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운영됐다.

교육생들은 “귀어학교 교육을 통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귀어에 대해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선배 귀어인이 경험과 노하우를 듣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며 “어렵던 장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자신감이 생기는 등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아 희망이 보인다”고 만족했다.



박준택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수료생들이 어가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 소멸위기에 직면한 전남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줄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남 어촌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귀어학교는 2018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세 번째로 지정받은 교육장이다. 2020년 6월 개교해 7기 교육까지 11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2020~2021년

수료생 74명을 대상으로 한 정착현황 조사 결과 38명이 어촌으로 돌아왔으며 이 중 36명이 전남지역 어촌으로 정착하는 성과를 찾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대 송창영 교수, 한빛 30주년 공로패 받아

일시 : 2022년 10월 28일(금) 오후 6시 / 장소 : 라페스타 4층 루키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건축학부(건축공학 전공) 송창영(왼쪽) 교수가 최근 광주 서구 라페스타웨딩홀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빛 3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패를 받았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아따’는 지역 건설회사를 비롯해 방송사, 법조계, 의료계, 학계 등의 단체 및 개인이 협력해 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송 교수는 사단법인 한빛의 후원단체인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들의 동행(이하 아따)’의 2대 후원회장을 맡으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단법인 한빛은 300여 명의 봉사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봉사단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유아·아동 대상 비대면 성교육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지난 29일 유아 및 아동(만 6세~8세) 10명을 대상으로 ‘내 몸아, 안녕?’ 비대면 성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자기존중에 따른 올바른 성가치관 향상에 초점을 맞춰 내 몸의 건강한 관리방법의 중요성과 정확한 성 지식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성교육 전문가와 실시간 쌍방향 소통으로 신체의 이해를 통한 자기존중과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을 증진하는 취지로 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사전에 배포한 성교육 키트(kit)와 영상을 통해 우리 몸의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의 이름을 알고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했다.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신혜연 센터장)는 “최근

유아 및 아동 자녀를 키우고있는 양육자들 사이에서 가정에서의 성교육 고충으로 인해 교육 의뢰가 많아짐에 따라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아 및 아동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사랑과 야망’ 최종수 PD 별세



‘사랑과 야망’, ‘그대 그리고 나’ 등 1980~90년대 MBC를 ‘드라마 왕국’으로 건설하는 데 주축이 된 최종수(사진) PD가 별세했다. 향년 76세.

31일 유족에 따르면 최 PD는 최근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다 전날 오후 7시께 세상을 떠났다.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3년 MBC에 입사, 첫 작품으로 최불암 주연의 수사실화극 ‘수사반장’ (1980)을 연출했다. 이후 MBC에서 드라마 ‘황진이’ (1982), ‘첫사랑’ (1985), ‘사랑과 야망’ (1987), 주말 연속극 ‘그대 그리고 나’ (1997) 등 화제작들을 만들었다. 최 PD의 작품에 출연한 이기우, 황신혜, 최민수, 하희라, 최불암, 최진실, 차인표 등 배우들은 스타 반열에 올라 당대 최고 인기를 누렸다.

/연합뉴스

#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영산강 환경개선 캠페인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과 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위원장 장정익),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김현식)는 최근 영산강 발원지인 담양군 용면 용소 주변에서 환경개선 및 근교지 안전강화 구현을 위한 환경·산업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제공>

##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KBS네트워크특선 언니랑 쓸래 30 영상앨범 산(재)	00 커튼콜(재)	15 헬로킴지 공학교실 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일당백집사(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영화가 좋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3	00 안녕 우리말 2022 05 동행(재)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살 문계공행(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숨터 스페셜(재) 35 주문을 잊은 음식점 2(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35 통합뉴스룸 ET	10 호적메이트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15 2022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키움:SSG)	05 보방을 보자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내 눈에 콩깍지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50 커튼콜	00 호적메이트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5 더 라이브		30 PD수첩	00 치열업
11	30 KBS 뉴스라인	05 주문을 잊은 음식점 2(재)	30 100분토론	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재)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영앤리치 젊은 부자들의 성공 안내서(재) 50 통합뉴스룸 ET(재)	55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30 뒤죽박죽의 빅풋패밀리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9:00 말괄량이 삤삤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30 한국의 둘레길
07:15 출동! 슈퍼왕스	12:10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	19:50 극한직업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댕댕뎀 유치원	13:50 EBS 다크프라임	<해피 해피 라오스 -모터사이클 알짜 루트>
08:20 로보가 폴리	14:45 비웃기 사람들	21:30 한국기행
08:35 명탐정 피트3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슬기로운 취미 생활 2부 드넓은 바다를 내 품에>
08:50 띠띠뽀 띠띠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크프라임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16:15 페파 피그	22:45 건축탐구 - 집
09:20 빅블루	16:25 명탐정 피트3(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35 타타와 쿠마	16:40 댕댕뎀 유치원(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일(음 10월 8일 戊午) ☎ 010-9790-8237

<p>36년생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충일에 힘써야겠다. 48년생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60년생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72년생 거지처럼 거지만 하고 소용되지 않는다. 84년생 자신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96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나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5, 51</p>	<p>42년생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54년생 겁보기에는 가득 찬 것 같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다. 66년생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점에 놓여 있다. 78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몸을 낮춰 지혜를 구하라. 90년생 자료부터 살펴봐야 명료한 판단이 선다. 02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9, 83</p>
<p>37년생 강력한 장애 요인 앞에서 끈속스러워하는 위상이다. 49년생 구관이 명관이라 했으니 새로 생기는 것보다 기존의 것이 훨씬 낫다. 61년생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느니라. 73년생 절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85년생 완곡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교가 필요하다. 97년생 하등의 문제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7, 70</p>	<p>43년생 처음부터 뚜렷이 구분될 것이다. 55년생 정도를 조절하면서 현안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67년생 기회가 가까이가 오고 있으니 눈여겨 보아라. 79년생 완벽을 꾀하다가 오히려 더 거주장스러운 꼴이 될 수도 있겠다. 91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길정을 부르리라. 03년생 상부상조한다면 능률을 극대화한다. 행운의 숫자 : 14, 60</p>
<p>38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머지않아 해결될 수이니 걱정하지 말고 임하라. 50년생 그럴듯한 명분에 현혹된다면 근원해진다. 62년생 지속적이면서도 성실하게 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공들여 왔던 것이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다. 86년생 저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98년생 의미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53, 88</p>	<p>44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56년생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68년생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함을 명심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롭다. 80년생 조정한다면 향상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92년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순조로움을 이룰 것이다. 04년생 기대했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98</p>
<p>39년생 성숙함을 보일 줄 아는 국량이야 한다. 51년생 호사다마요. 세용지마에 비유할 만하므로 좋다고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요, 나쁘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63년생 즉흥적인 조치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하라. 75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87년생 희색이 만연해진다. 99년생 숙전숙결로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47, 99</p>	<p>33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45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57년생 도약을 위한 고통은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 69년생 번거롭더라도 직접 행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81년생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93년생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89</p>
<p>40년생 치열하게 고생한 만큼 보람도 느낄 것이니라. 52년생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시기이다. 64년생 원칙은 알고 있되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 76년생 절대로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88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00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행운의 숫자 : 11, 68</p>	<p>34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46년생 제대로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58년생 훗날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70년생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82년생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94년생 표면의 현상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06, 77</p>
<p>41년생 동기를 부여하는 기반이 조성되리라. 53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65년생 갈림길에 서게 되리라. 77년생 도중에 찬물을 끼얹어놓는 이가 나타날 수 있다. 89년생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01년생 먼 안목으로 내다보는 예지가 수반된다면 훌륭한 구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78</p>	<p>35년생 행해야 할 바를 소홀히 한다면 후회하게 된다. 47년생 습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리라. 59년생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포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71년생 할애하는 선택의 풍향이 수시로 변하는 이치이니라. 83년생 다각적인 관점과 인식이 절실히 요청된다. 95년생 동기 부여가 절실한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36, 67</p>